



안녕하세요?

스터디홀릭 열혈운영자 강명규쌤입니다.

전국 각지로 강연과 상담을 다니다 보면 초중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초중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여기에서 잘 하는 애들은 탄데 가서도 잘 해요. 중학교는 어차피 뽕뽕이라서 별 차이 없어요.’

고등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선발형 학교들도 있고, 일반고도 선지원 후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학교별로 학력차이가 난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선발형 학교에 보내거나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지만 중학교는 속칭 뽕뽕이(추첨)로 학생을 배정하다 보니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십니다. 똑같은 동네에 살면서 똑같은 초등학교에 다닌 애들을 무작위로 배정한 것인데 설마 차이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모님들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여유를 갖기가 쉽습니다. 애들을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면 공부에 질려서 나중에 공부를 못하게 된다면서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초등학교나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초중학교 때 공부 잘 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초등학교 성적은 엄마성적이고, 중학교 성적은 학원성적이며, 고등학교 성적이 진짜 실력**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부 잘 하는 고등학생들을 보면 역시나 초중학교 때부터 잘 했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지 초중학교 때는 못했다가 고등학교 때만 잘 하는 아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 때 기초를 제대로 닦아놓지 않으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고등학교 공부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요. 부자가 공부를 잘 한다는 말이 아니라

공부는 한 번 잘 하면 계속 잘 하고, 한 번 못하면 계속 못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공부가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 중 하나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잘 해야 재미가 있는 것인데 잘 못하니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게을리 하게 되고, 공부 때문에 혼나기까지 하니깐 공부가 더 싫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중학교 때 아이들의 학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1. 정말 여기에서 잘 하는 애들은 댜데 가서도 잘 할까요 ?

(지역별 학력격차 유무)

2. 중학교는 뽕뽕이 돌려서 배정하는 것이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까요?

(지역 내 학력격차 유무)

그래서 친절한 캉쌤이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지요. 이 시험은 학생들의 개인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지만 학교별 성적은 공개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학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 학교의 학력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아이의 전국단위 경쟁력을 유추해볼 수 있지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통해 우리 아이 학교가 얼마나 공부를 잘 하는지 지역 내 경쟁력을 확인해볼 수 있고, 아이가 받아오는 학교시험 성적을 통해 학교 내 경쟁력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 이 두 가지 지표를 결합시키면 우리 아이의 대략적인 전국단위 경쟁력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캉쌤이 강원도 원주시 중3 학생들이 2016년 6월에 응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전수조사해서 국/영/수 평균 백분률로 순위를 메겨봤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가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2016학년도 원주시 중학교 순위 (학업성취도평가 국영수 평균 보통학력이상 비율 기준)

지역 순위	지역	학교명	과목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응시 인원	응시율
1 / 21	원주시	원주삼육중학교	평균	97.0%	2.8%	0.2%	134	98.5%
2 / 21	원주시	황둔중학교	평균	83.3%	16.7%	0.0%	8	100.0%
3 / 21	원주시	반곡중학교	평균	82.1%	15.8%	2.1%	365	97.9%
4 / 21	원주시	귀래중학교	평균	81.5%	18.5%	0.0%	9	100.0%
5 / 21	원주시	남원주중학교	평균	79.1%	19.0%	1.9%	330	99.6%
6 / 21	원주시	원주여자중학교	평균	76.1%	20.3%	3.6%	362	99.4%
7 / 21	원주시	상지여자중학교	평균	76.1%	20.5%	3.4%	192	99.0%
8 / 21	원주시	원주대성중학교	평균	74.8%	21.5%	3.7%	230	100.0%
9 / 21	원주시	단구중학교	평균	74.0%	22.6%	3.4%	318	98.5%
10 / 21	원주시	원주중학교	평균	71.6%	23.2%	5.2%	326	99.7%
11 / 21	원주시	치악중학교	평균	67.0%	27.3%	5.7%	216	99.5%
12 / 21	원주시	평원중학교	평균	66.9%	25.9%	7.2%	265	98.8%
13 / 21	원주시	학성중학교	평균	65.7%	28.0%	6.3%	264	100.0%
14 / 21	원주시	육민관중학교	평균	63.7%	29.9%	6.4%	68	100.0%
15 / 21	원주시	북원여자중학교	평균	63.2%	30.2%	6.5%	184	100.0%
16 / 21	원주시	신림중학교	평균	61.1%	33.3%	5.5%	12	100.0%
17 / 21	원주시	진광중학교	평균	59.8%	32.7%	7.5%	213	98.2%
18 / 21	원주시	태장중학교	평균	59.6%	32.2%	8.2%	191	99.2%
19 / 21	원주시	문막중학교	평균	50.8%	37.6%	11.6%	144	99.8%
20 / 21	원주시	지정중학교	평균	41.7%	50.0%	8.3%	8	100.0%
21 / 21	원주시	호저중학교	평균	38.9%	52.8%	8.3%	12	100.0%
	원주시	부론중학교	평균	0.0%	0.0%	0.0%	0	0.0%

※ 과목별 순위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스테디홀릭의 전국 중학교 순위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강세를 보이는 학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과목별 순위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영어학원에 가면 A 중학교가 공부를 잘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수학학원에 가면 B 중학교가 더 잘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목별로 공부를 잘 하는 학교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중학교 순위 : http://www.studyholic.com/mid/index.asp?tn=RAN_002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역시나 선발형 중학교인 원주삼육중학교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2등인 황둔중학교와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13.7%나 차이를 보이고, 꼴등인 호저중학교와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니까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나 학생수 등 기본적인 여건에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량과 열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소규모 시골 학교일지라도 선생님의 열정만 있다면 도시 아이들 못지 않은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지요.)

그런데 원주삼육중학교는 선발형 학교니까 일반중학교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중학교들끼리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지역에 위치한 같은 학군 내의 중학교끼리도 차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수준의 아이들도 어느 학교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학력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서요. 그렇다 보니 출신학교에 따라 고등학교 성적이 결정되는 상황까지 발생해버립니다. 중학교 때 벌어진 학력격차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입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학은 이미 중3 때 결정된다’**라고요. 물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 학력격차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하거나, 머리가 더 좋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언론에 보면 중학교 때까지 게임페인으로 살다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합격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언론에 장미빛 사례들이 종종 보도되니까 **‘우리 아이도 마음잡고 공부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을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생각은 **희망고문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거든요.

언론에 소개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흔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 소개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것이지요. 드문 일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론에 소개되지도 않고 관심도 받지 못하겠지요.

명문대 합격수기를 읽어보거나 공부법 강사들의 강연을 들어보면 자신의 과거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을 뿐인데 상당히 불량한 학생이었거나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던 것처럼 포장해버리지요. 그래야 성공스토리를 더 극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으니까요.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감명도 받고 동기부여도 되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재미를 배가하기 위해 부풀려진 이야기들이니까요. 심지어 합격수기 책들을 보면 본인이 직접 집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작가들이 대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작가들이 녹음기를 꺼내놓고 몇 시간 동안 인터뷰한 후 적당히 각색해서 쓰는 것이지요. 성공수기 책들을 보면 문장이 굉장히 매끄럽고, 이야기 전개도 자연스러워서 ‘이런 학생들은 공부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글도 잘 쓰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전문작가가 대필해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은이 자신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나?!’라며 놀랄 때가 있지요. -_-;;

어쨌든 뒤늦게 마음잡고 공부해도 공부를 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상으로 그런 경우는 매우 적지요. 대부분 공부 잘 하던 아이가 계속 잘 하고, 못 하던 아이는 계속 못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면 다른 아이들도 공부하고, 다른 아이들도 우리 아이 못지 않게 머리가 좋으니까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1 신입생들을 받아 수업을 해보면 어느 학교 출신인지 감이 잡힐 때가 있다고요. 중학교 별로 학업분위기나 학력이 다르다 보니 수업을 해보면 느낌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간 학력격차는 어떨까요? 여기서 잘 하는 애들은 다른데서도 잘 할까요? 중학교 실력은 여기나 저기나 별 차이 없을거라고요? 그래서 친절한 캥썸이 강원도 원주시 중학교들과 국내 최고 학군이라는 서울 강남구 중학교들의 학력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 2016 강원도 원주시 vs 서울 강남구 (학업성취도평가 국영수 평균 보통학력 이상 비율 기준)

지역 순위	지역	학교명	과목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응시인원	응시율
1 / 24	강남구	대왕중학교	평균	97.7%	2.2%	0.1%	298	99.0%
2 / 24	강남구	압구정중학교	평균	97.6%	2.2%	0.2%	152	99.3%
3 / 24	강남구	대청중학교	평균	97.2%	2.1%	0.7%	329	98.8%
1 / 21	원주시	원주삼육중학교	평균	97.0%	2.8%	0.2%	134	98.5%
4 / 24	강남구	대명중학교	평균	95.3%	4.1%	0.6%	343	99.4%
5 / 24	강남구	신사중학교	평균	94.8%	4.3%	0.9%	141	99.3%
6 / 24	강남구	단국대사대부속중학교	평균	94.6%	4.5%	0.9%	191	99.5%
7 / 24	강남구	역삼중학교	평균	94.4%	5.0%	0.6%	376	98.2%
8 / 24	강남구	도곡중학교	평균	94.3%	4.4%	1.4%	221	99.1%
9 / 24	강남구	구룡중학교	평균	94.2%	5.4%	0.4%	230	99.1%
10 / 24	강남구	진선여자중학교	평균	93.7%	5.3%	1.0%	334	99.4%
11 / 24	강남구	언주중학교	평균	92.1%	6.8%	1.1%	325	98.5%
12 / 24	강남구	숙명여자중학교	평균	91.9%	6.1%	2.0%	283	99.3%
13 / 24	강남구	봉은중학교	평균	90.5%	8.1%	1.4%	144	98.6%
14 / 24	강남구	휘문중학교	평균	90.0%	5.3%	4.8%	265	98.1%
15 / 24	강남구	대치중학교	평균	88.5%	7.9%	3.6%	195	97.5%
16 / 24	강남구	은성중학교	평균	88.2%	10.4%	1.5%	138	99.3%
17 / 24	강남구	개원중학교	평균	87.0%	9.5%	3.5%	267	97.4%
18 / 24	강남구	개포중학교	평균	86.0%	12.2%	1.8%	109	98.2%
19 / 24	강남구	청담중학교	평균	85.6%	11.7%	2.7%	162	99.4%
20 / 24	강남구	세곡중학교	평균	84.6%	12.2%	3.2%	247	100.0%
21 / 24	강남구	중동중학교	평균	84.6%	12.0%	3.4%	275	100.0%
2 / 21	원주시	황둔중학교	평균	83.3%	16.7%	0.0%	8	100.0%
22 / 24	강남구	언북중학교	평균	83.3%	14.1%	2.5%	118	95.9%
23 / 24	강남구	신구중학교	평균	82.7%	11.3%	6.0%	127	96.9%
3 / 21	원주시	반곡중학교	평균	82.1%	15.8%	2.1%	365	97.9%
4 / 21	원주시	귀래중학교	평균	81.5%	18.5%	0.0%	9	100.0%
24 / 24	강남구	수서중학교	평균	80.0%	17.3%	2.7%	135	99.3%
5 / 21	원주시	남원주중학교	평균	79.1%	19.0%	1.9%	330	99.6%
6 / 21	원주시	원주여자중학교	평균	76.1%	20.3%	3.6%	362	99.4%
7 / 21	원주시	상지여자중학교	평균	76.1%	20.5%	3.4%	192	99.0%
8 / 21	원주시	원주대성중학교	평균	74.8%	21.5%	3.7%	230	100.0%
9 / 21	원주시	단구중학교	평균	74.0%	22.6%	3.4%	318	98.5%
10 / 21	원주시	원주중학교	평균	71.6%	23.2%	5.2%	326	99.7%
11 / 21	원주시	치악중학교	평균	67.0%	27.3%	5.7%	216	99.5%
12 / 21	원주시	평원중학교	평균	66.9%	25.9%	7.2%	265	98.8%
13 / 21	원주시	학성중학교	평균	65.7%	28.0%	6.3%	264	100.0%
14 / 21	원주시	육민관중학교	평균	63.7%	29.9%	6.4%	68	100.0%
15 / 21	원주시	북원여자중학교	평균	63.2%	30.2%	6.5%	184	100.0%

16 / 21	원주시	신림중학교	평균	61.1%	33.3%	5.5%	12	100.0%
17 / 21	원주시	진광중학교	평균	59.8%	32.7%	7.5%	213	98.2%
18 / 21	원주시	대장중학교	평균	59.6%	32.2%	8.2%	191	99.2%
19 / 21	원주시	문막중학교	평균	50.8%	37.6%	11.6%	144	99.8%
20 / 21	원주시	지정중학교	평균	41.7%	50.0%	8.3%	8	100.0%
21 / 21	원주시	호저중학교	평균	38.9%	52.8%	8.3%	12	100.0%
	원주시	부른중학교	평균	0.0%	0.0%	0.0%	0	0.0%

안타깝지만 **지역간 학력격차를 비교해보면 지역 내 학력격차보다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주삼육중학교는 선발형 학교다 보니 서울 강남구 학교들과 비교해도 보통학력 이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일반중학교는 서울 강남구로 오면 곧바로 최하위권으로 전락하는 것이지요.

(원주삼육중학교도 위 표를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위 표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로 순위를 매긴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통학력은 50점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90점 이상으로 순위를 다시 매기면 원주삼육중도 위의 순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될 수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친구들이 공부를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표를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역시 지역이 문제야, 이 동네는 애들 공부시킬 분위기가 아니라서 빨리 이 동네를 떠나야겠어.’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절한 캄뎀 역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런 정보를 보면 하루빨리 강남으로 이사가고 싶어지거든요.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사를 못 갈 뿐이지요. 오죽하면 ‘강남입성’이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물’이 아니라 ‘개구리’라는 것이지요.** 개구리가 그나마 우물 안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지만 만약 우물 밖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개구리들은 뱀에게 잡아먹혔을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강남으로 이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속된 말로 대치동 애들 바닥 깔아주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스개 소리로 **내신쿠션, 내신 카페**

트라고 부르지요. ‘야! 네가 내 밑을 깔아줄 내신 카페트구나. 3년간 너를 즈려밟고 지나가줄 테니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말고 내 밑을 계속 깔아줘!’라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즉, 지역간 학력격차가 발생한다고 해서 막연히 이사를 강행하는 것은 아이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남 등 교육특구라는 곳으로 이사가고 싶으시다면 ‘강남 가서 잘 해보자’가 아니라 ‘**강남에서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실력부터 키워보자**’가 되어야 하지요. 소중한 우리 아이를 내신 쿠션, 내신 카페트로 만들지 않으려면요. 내신 쿠션이나 내신 카페트는 성적만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까지 짓밟히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으로 이사가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춘다면 굳이 강남으로 이사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요즘 입시는 고입이든 대입이든 내신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내신관리를 잘 하는 것이 입시에 더 유리하거든요. **입시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우물 안 용 전략**이지요. 나도 용이기 때문에 다른 용과 싸워도 두렵지 않지만 용끼리 싸워봤자 상처 뿐인 영광일 뿐이니 굳이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좋지요. 내노라 하는 특목고에 합격할 수도 있고, 강남에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굳이 우리 지역에 남아 전교권 내신을 싸쓸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물 안 용 전략이지요. 우리 지역에서 내신관리를 수월하게 한 후 서울대 등 명문대에 지역균형선발전형같은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합격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다룰 능력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 학교의 학업경쟁력과 우리 아이의 학교 내 경쟁력을 분석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전국단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아는 것 못지 않게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을 타하기 전에 내 아이의 실력과 나의 교육열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원주라는 단점이 아니라 원주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원주에서 원주처럼 공부하니깐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이지, 원주에서 강남처럼 공부하면 강남 아이들보다 더 훌륭한 실적을 거둘 수 있거든요. 원주에서의 내신관리는 강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우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원주 아이들이 날개를 활짝 펴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친절하고 다양한 교육정보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캄캄이 사비로 운영하는 교육정보 무료공유 사이트인 '스터디홀릭'에 오시면 많은 정보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으니 시간나실 때마다 들리셔서 정보의 안테나를 한껏 올려보세요.

이상으로 스터디홀릭 열혈운영자 강명규쌤이었습니다. 유후~~~!!! ^O^/

추신. 2017년부터 정부정책에 의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일반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2016년까지는 전국의 거의 모든 중학교가 응시했지만 2017년부터는 일부 표본학교들만 응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지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전격 중단된 것인데 그 이유는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 감추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당장은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게 되지만 학력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되어 그 차이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강남 아이들은 이렇든 저렇든 계속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우리 원주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 한다고 착각하며 시간을 허비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T_T

※ 전국 초/중/고등학교들의 **상급학교 진학실적** 및 **재학생들이 작성한 학교리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초등학교 정보 : http://www.studyholic.com/ele/School_TotalList_ele.asp
- 전국 중학교 정보 : http://www.studyholic.com/mid/School_TotalList_mid.asp
- 전국 고등학교 정보 : http://www.studyholic.com/high/School_TotalList_high.asp

※ 이 자료는 교육정보 공유목적으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카페나 블로그, SNS 등에서 자유롭게 공유하시거나 학원 등에서 배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용을 수정하거나 출처를 삭제하는 등 임의로 변형하지 말아주세요.

※ 강명규쌤 이메일 : studyholic@studyholic.com